

재일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연구*

林永彦**

目 次

1. 연구 목적
2. 재일한인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연구 동향
3.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4. 네트워크 구축 분석결과
5.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 목적

재일한인 사회의 대표조직인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 창단된 이래 60년이 지난 작금 재일한인 사회 내의 조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의식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초국가적인 글로벌시대의 확산으로 인한 재일한인 3세~4세 청소년들의 ‘한국과의 정신적 유대감의 약화’, ‘민족에 대한 열등감(민족일원으로서의 자기 부정)의 정신구조’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 또한 재일한인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립과 갈등의 화해무드가 2006년 민단·총련의 ‘5·17 공동성명’발표로 인하여 이분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²⁾. 더욱이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과거 민족차별과 민족교육의 부재 등으로 민족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1) 福岡安則·金明秀(1994)『第3次在日韓国人青年意識調査報告書』pp.1~3 참조

2) 2006년 5월17일 민단과 총련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역사적인 화해를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의 염원, 민단과 총련의 화합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의 실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일본 지역사회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민단조직자체와 규약상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민단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같은 해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5·17공동성명’ 백지화되었지만 조직의 혼란을 초래한 민단중앙3기관에 대한 조직내부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일본사회로의 동화나 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일본사회와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소수민족으로서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 사회의 혼돈과 조직의 이탈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연구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조직의 위기에 직면하여 과연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논문은 재일한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넓은 의미로는 민단계와 총련계를 포괄하는 한국적, 조선적(무국적), 귀화자(일본국적취득자)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일본에서 영주하는 15세~24세까지의 재일한인 청소년들이다³⁾.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재일한인 청소년 조직은 한때 일본 전국조직은 물론, 도쿄도내 21개 민단지부를 중심으로 민족차별 철폐운동과 권리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시대 도래로 일본사회의 조류가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재일한인 단결의 핵심이었던 소수민족문제, 차별철폐, 민족간 상호부조의 정신이 글로벌 시대와 환경변화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면서 조직이탈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밖에도 재일한인 청소년의 조직이탈의 배경에는 민단이나 총련조직의 급속한 초국가적인 사회변화에 대처하여 실태파악에 의한 조직의 과거와 미래 방향성, 비전의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일본사회의 오랜 불경기로 인한 재일한인 사회의 재정기반인 중소기업영업자들의 경영부진, 민족금융기관의 파산 및 합병 등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재일한인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재생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가동 중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어린이캠프, 청소년일군육성사

사게 되어 중앙기관의 총사퇴로 이어졌다.

- 3) 정진성(2001), 「조총련 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pp.43-45 참조

재일한인 사회는 해방직후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 재일본조선인민거류동맹 등 총 300여개가 난립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를 규합하여 1945년 9월에 재일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1945년 10월 15일 결성된 재일조선인연맹(朝聯)과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총련’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총련조직은 일본정부의 탄압, 북한의 재일동포 포용정책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의 변화, 재일한인 사회 내부변화, 일본사회의 재일한인 정책,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일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한편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결집하여 1945년 11월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을 발족, 중립파들이 1946년 1월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다. 건청과 건동 등 군소 32개 단체의 반공 우익진영의 결집체로서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을 결성했다.

업, 일본 지역사회활동 참가 등이다. 또한 어린이 캠프와 청년간부 및 회원중심의 연수사업을 통한 재일한인 사회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 다민족 다문화시대의 일본지역사회와의 공생지향 등 이었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 사회는 초국가적인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사회의 급변과 정체성의 혼란, 민단조직의 이탈, 공생사회의 출현 등 총체적인 위기감 속에서도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비전제시와 새로운 개념의 조직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의 조직이탈 현상은 민족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민족성을 재생산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활성화의 전략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가정 내의 민족성 유지와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민족교육이나 민족단체로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해보고 한인사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민족단체로의 참가를 유인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재일한인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연구 동향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일본사회에서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나 민단이든 총련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포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연구에 의하면 내부결속력이 강한 집단인 총련의 경우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이 동포간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⁴⁾.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총련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기 의지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초급학교에서부터 고급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총련계 민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민족자긍심과 애착심이 강해 일본식 통명보다는 본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네트워크 범위가 좁다. 총련계 재일한인의 경우 네트워크 범위가 자신의 가정과 총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좁은 공간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범위도 동포 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⁵⁾.

4) 김정구(2004)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p.275

이와는 반대로 민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일본 지역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현지 일본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민족학교 출신자보다는 일본학교를 졸업한 자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일본어에 친숙하고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민족차별 속에서 성장한 부모세대의 영향으로 민단내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도 일본인과의 네트워크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총련계 재일한인보다는 네트워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치는 총련계 청소년이 당면한 동포 간 네트워크 의존경향과 부모세대의 일본인과의 네트워크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네트워크 구조, 즉 '그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심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만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다. 재일한인들 역시 일본사회에서의 국적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적과 민족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재일한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실태연구가 1986년, 1987년, 1994년, 1995년, 2000년 등 5회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이들 연구결과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일본 내 소수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의 약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坂中英徳, 2000).

이러한 재일한인 사회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대균(鄭大均, 1991), 후쿠오카·야스노리(1993), 김명수(1994)와 윤건차(1999), 하라지리(原尻英樹, 1998), 소냐량(Sonia Ryang, 1997)은 사회학적, 또는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명수의 연구는 기존의 민족정체성이 민족차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입장을 과감히 탈피하여 획득과 계승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후쿠오카와 윤건차의 연구는 민족정체성이 가변적임과 동시에 유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개인생활 속의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재구축되어 간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한영혜, 2006)⁶⁾.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어느 한쪽에 귀속되기

5) 일본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에 기재되는 정식 이름을 '본명' 이라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을 '통명'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민족정체성과 사회적 관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축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 1985년 호적법 개정 이후 일본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민족명(본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6) 한영혜(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제71집, 한국사회학회, pp. 179-180

보다는 일본인임과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자기규정을 강화시키는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의 근거에는 국제화시대에 일본의 ‘입국관리법’의 개정과 더불어 ‘다민족 다문화시대’도래로 인한 민족정체성의 다양화가 근거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연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거의 60년 동안에 걸쳐 형성된 집단과 총련이라는 이념과 대립의 두꺼운 벽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기존연구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 청소년의 정체성은 일본사회의 국제화,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⁸⁾, 다민족 다문화시대의 출현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따라서 재일한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도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지금까지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복합적인 민족정체성의 양상과 민족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재일한인 청소년 15~24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약 3개월간 걸쳐 현지에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¹⁰⁾. 분석방법으로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성별차이, 한국방문

7) 일본정부는 1989년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노동력의 수요에 대응하고 불법체류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주자’ 자격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열어주었다.

8) 일본정부는 1984년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비준하여 국적법을 개정하여(1985년 시행) 국적 계승의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했다. 또한 일본 호적법의 경우 국제 결혼한 일본 여성들은 자연히 국적을 상실하여 호적에서 말소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호적법이 개정되어 호주제가 폐지되고 결혼하면 부모의 호적에서 분리되어 배우자와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9)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앞의 논문(한영혜, 2006), pp.170-171 참조

한영혜의 논점에 따르면 국적법 및 호적법의 개정이 초래한 중대한 의미로서 1)일본인의 혈통과 함께 외국인의 혈통도 있는 ‘혼혈’로서 두 민족성을 아우르는 일본 국민의 다수 존재와 증가 가능성의 표면화, 2)국적이 일본일지라도 국적과는 다른 정체성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일본인의 가시화, 3) 부모양계주의 채택에 의한 민족정체성의 근거로서 ‘혈통’은 혈연관계의 포섭과 배제로 존립해온 이념적 허구성의 노정 등이다.

10) 이 연구는 15세~24세까지의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출생의 일본적(일본국적 취득자), 한국적, 조선적 소유자의 15세~30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조선유학동맹 각 지부, 각 일본대학의 유학생회,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등의 협력을 구했다.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각 항목별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인 재일한인 청소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아 새로운 터전을 찾아 강제적이던 자발적이던 해외 이주의 길을 떠난 재일한인 1세들의 자손들로 현재 재일3세~ 재일5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¹⁾.

조사대상 지역은 일본에서 재일한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지역과 인근지역의 특별영주자격¹²⁾을 가진 귀화자, 한국적, 조선적(무국적)을 포함한 재일청소년 6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면접조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공동연구원이 직접 조사대상자의 학교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표의 기입을 의뢰하고 회수했다. 또한 조사표를 현장에 놓아두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부탁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징만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간토지방이 9.2%, 아이치가 33.3%, 간사이지방이 50.6%, 큐슈지방이 4.4%, 기타가 2.5%이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46%, 여성이 54%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89.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10%는 24세 이상의 재일한인들이다. 현재신분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73.5%였다. 종교별로는 ‘무종교’가 69.5%, ‘불교’가 9.4%, ‘유교(제사)’가 8.7%, ‘기독교’가 6.5% 등이었다. 이민세대별 분포에서는 이민3세~이민4세가 전체 90.5%를 차지했다. 장래희망 직종에서는 ‘전문직’이 47.6%, ‘서비스직’이 8.6%였으며 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92.1%가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민족적 배경은 ‘부모 모두 한인’의 경우가 84.7%,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이 49.6%, 부모의 직업으로는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이 54.2%를 차지했다. 가정의 수입정도나 소득수준,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샘플이 간사이 지역의 오사카에 거주하고 연령별로는 15세~24세, 무종교, 이민 3세~4세, 부모 모두 한인이며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자인 재일한인의 미들클래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11) 김민영(1993) 「식민지 시대, 조선인 ‘전시노무동원’ 문제에 대한 연구쟁점과 전망(II)」, 『지역개발연구 제32권 1호』, p.56

12) 일본정부는 1991년 5월 세계2차 대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자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한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전체에게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4. 네트워크 구축 분석결과

1) 개인상담 네트워크(Personal Network)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 어떠한 개인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상담상대자의 성별, 국적, 상담상대자와의 관계, 물리적 거리(거주지), 접촉빈도, 상담내용, 참가활동 단체, 친밀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먼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상대자의 성별을 질문한 결과, 남성이 42.7%, 여성이 57.3%로 여성으로부터 도움 받은 사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재일한인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상담자의 성별	남성	42.7%(199)	상담 자 접촉 빈도	1주일1회	42.8%(181)
	여성	57.3%(267)		월1회	38.1%(161)
상담자의 국적	한국인	9.5%(44)		1년1회	10.9%(46)
	재일한인	48.4%(224)	상담 내용	거의 없음	8.3%(35)
	일본인	38.7%(179)		법률 상담	0.4%(2)
	중국인(조선족)	0.8%(1)		금전적인 도움	1.1%(5)
	기타 외국인	2.6%(12)		장래문제	80.0%(357)
상담자와 의 관계	배우자	2.1%(10)		취업문제	13.2%(59)
	가족	11.4%(53)	친밀 도	기타	5.2%(23)
	친척	2.4%(11)		매우 친함	63.0%(290)
	향우회	6.9%(32)		친함	30.2%(139)
	같은 회사 동료	23.2%(108)		보통	5.9%(27)
	학교 선후배	25.5%(119)		친하지 않음	0.9%(4)
	기타	28.5%(133)	참가 활동 단체	스포츠 활동	19.0%(120)
상담자와 의 물리적 거리	도보 거리	15.3%(70)		민족 권리운동	24.6%(156)
	버스 이동거리	13.1%(60)		문화교류	37.6%(238)
	같은 도시	36.8%(169)		언어교육	25.4%(161)
	일본 국내	31.8%(146)		정치활동	11.2%(71)
	한국, 기타 외국	3.1%(14)		종교활동	1.1%(7)
				연구활동	12.0%(76)
				기타	6.8%(43)

주) 재일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응답 633명 중 개인적,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 표 중의 숫자는 %, ()안의 숫자는 빈도.

재일한인 청소년의 상담상대의 국적 및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일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인지

를 질문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일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한 상담상대자로서 ‘재일한인’이 48.4%, 그리고 ‘일본인’이 38.7%, ‘한국인’이 9.5%, 중국인이 0.8%, 기타외국인이 2.6%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한인의 귀화자 증가로 인한 민족정체성과 연대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상담상대자로서 동족의 재일한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그 다음으로 상담상대자로서 일본인이 38.7%로 재일한인들에게 현지 일본인들도 상담상대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추측 가능하게 하지만 먼저 재일청소년의 경우 재일 1세~재일 2세와는 달리 일본국제화와 더불어 민족차별이나 취직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 일본인과의 교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3세~재일5세가 많기 때문에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여 상담상대자로도 일본인 동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일본계학교를 졸업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재일한인들과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고등학교졸업 때까지 민족학교를 졸업한 경우 상담상대자로서 재일한인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과 상담상대의 성별 교차표

성별	상담상대 성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165(77.8)	47(22.2)	212(100)
여성	34(13.4)	220(86.6)	254(100)
합계	199(42.7)	267(57.3)	466(100)

주) 카이제곱(1df)=196.138, P=0.000

다음은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상담상대자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 선후배’가

13) 坂中英徳(2000)「在日韓国・朝鮮人の過去・現在・未来」『現代コリア』401号 pp.30-41

재일한인들은 1970년대 본국귀환이나 일본정주나가 문제였지만 최근 21세기에 들어서는 일본사회에서 민족집단(Ethnic Group)으로 잔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안정, 재일한인 3세~4세의 귀화, 재일한인 간 결혼감소와 통혼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25.5%, ‘같은 회사동료’가 23.2%, ‘가족’이 11.4%, ‘향우회’가 6.9%, ‘친척’이 2.4%, ‘배우자’가 2.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각종 민족단체나 학생회, 서클활동을 통하여 만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표 3> 성별 및 상담상대자와의 접촉빈도

성별	접촉빈도				합계
	1주일 1회	월 1회	1년 1회	거의 만나지 못함	
남성	103(51.8)	58(29.1)	24(12.1)	17(7)	199(100)
여성	78(34.8)	103(46)	22(9.8)	21(9.4)	224(100)
합계	181(42.8)	161(38.1)	46(10.9)	35(8.3)	423(100)

주) 카이제곱(16.096), $P=0.001$

다음은 상담상대자가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접촉빈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상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상담상대자와 ‘같은 도시’가 3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일본 국내’가 31.8%, ‘걸어 갈 수 있는 거리’가 15.3%,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3.1%, ‘한국이나 기타 외국’등이 3.1% 순이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대부분 상담상대자로서 일본 내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28.4%가 걸어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한국이나 기타 외국에 상담상대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이나 기타 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상담상대자와의 접촉빈도로서 재일한인 청소년이 평소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라고 질문했다. 조사결과, ‘1주일 1회’가 42.8%로 가장 높았고, ‘월 1회’가 38.1%, ‘1년 1회’가 10.9%, ‘거의 만나지 못함’이 8.3%였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상담상대자로서 동족인 자신의 이웃이나 이동하기 쉬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상담내용에 대하여 재일청소년들에게 상담 시 상담상대자와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게 되는가? ‘상담상대자와 상담한 내용이나 도움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다. 먼저 ‘향후 진로나 고민상담’이 8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문제’가 13.2%였다. 즉,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상담내용은 주로

자신들의 향후 진로나 취업문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9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한인들의 진로나 취업이 동족간의 강한 민족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상담상대자와의 친밀도에 대해서는 ‘매우 친하다’가 63%, ‘친하다’가 30.2%, ‘보통이다’가 5.9%, ‘전혀 친하지 않다’가 0.9%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일한인 청소년의 93.2%가 상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족의 이웃이나 주변사람 등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를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누구와 상담하기를 좋아하는지 성별 선호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 2>은 재일청소년의 성별과 상담자의 성별을 교차 분석한 것이다. 교차분석결과,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남성은 남성과 상담한 비율이 77.8%, 여성은 여성과 상담한 비율이 86.6%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에 대하여 동성의 동료와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에 대하여 상담상대자로서 같은 성을 선호하는, 즉 성별이라는 족성에서 동질적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류원리(Homophily Principle)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성별로 접촉빈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정도가 51.8%, 여성은 월 1회 만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여성보다 남성이 각종 비즈니스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상대자와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2)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들이 참가하고 있는 조직 및 활동단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문화교류가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언어교육이 25.4%, 민족권리 운동이 24.6%, 스포츠가 19%, 연구활동이 12%, 정치활동이 11.2%, 종교활동이 1.1%, 기타가 6.8%였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주로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내 한류로 인한 한글배우기 붐으로 한글교육관련 단체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따라서 2004년부터 시작된 ‘한

14) 박용구(2007), 「겨울연가 ‘쓰나미’와 일본인의 대한 이미지 변화」 『일본연구』 제31호, p.63 참조

류'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현재 민족단체나 학교 서클활동을 통한 한글 교육이 나 한국문화보급이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화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 네트워크 구축 관련

측정항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합계
한인(조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86(16.2)	76(14.3)	132(24.9)	86(16.2)	150(28.3)	530 (100)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157(29.5)	100(18.8)	129(24.2)	71(13.3)	75(14.1)	532 (100)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14(21.6)	168(31.9)	179(34)	44(8.3)	22(4.2)	527 (100)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33(6.2)	30(5.6)	152(28.6)	141(26.5)	176(33.1)	532 (100)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205(38.7)	105(19.8)	122(23)	45(8.5)	53(10)	530 (100)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87(16.5)	77(14.6)	221(41.9)	75(14.2)	68(12.9)	528 (100)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24(4.5)	43(8.1)	259(48.7)	117(22)	89(16.7)	532 (100)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62(11.8)	64(12.2)	296(56.3)	54(10.3)	50(9.5)	526 (100)
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43(46)	120(22.7)	95(18)	32(6.1)	38(7.2)	526 (10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95(55.8)	132(25)	73(13.8)	12(2.3)	17(3.2)	529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안의 숫자는 %

그러면 실제로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일본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일한인 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 실태와 관련하여 10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다양한 한인(조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약 44.5%가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청소년의 30.5%는 한인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인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1960~70년대의 경제성장,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 1988년 서울올림픽,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개최, 2004년 8월 21일 NHK '겨울연가'의 방송 등으로 인하여 상승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의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재일한인들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응답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27.4%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각종 한인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높지만 재외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도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조사결과 53.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2.5%만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으며 절반이상은 한국정부가 재외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소극적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음은 한국과의 교류확대의 측면에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59.6%가 향후 한국과의 교류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했다¹⁵⁾.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터넷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27.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1.1%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활용도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인터넷을 통한 한국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일본 내 한국 유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38.7%가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12.6%가 한국유학생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한국유학생에 대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 내 한국유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만이 한국유학생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민단과 총련이라는 두 조직의 이념과 대립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유학생들

15) 이제환(2006), 「在日韓人の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 pp.40-41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재일한인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재일한인이 정보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와 직결된 사업이나 취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정보빈곤 현상은 일본에서 정착 기간이 짧은 뉴커머 집단과 총련계 ‘조선국적(무국적)’의 올드커머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재일한인 2세~4세의 경우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한국유학생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과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하여 13.3%만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5%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소통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반면, 한국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보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재일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정책홍보와 정보소통에 필요한 환경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¹⁶⁾.

3) T-test 및 ANOVA 분석결과

재일한인 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값은 남성이 2.29, 여성이 2.29로 남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03$, $p>.05$).

<표 5>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n=291)	여성 (n=341)	t(p)
	$\bar{x} \pm S.D.$	$\bar{x} \pm S.D.$	
네트워크 구축	2.29 $\pm$ 1.140	2.29 $\pm$ 1.237	.003 (.079)

다음 <표 6>은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각 항목별 네트워크 구축관련 ANOVA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연령대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6.905$, $p<.001$). 집단 간 차이를

16) 앞의 논문(이제환, 2006)에 의하면 재일한인 사회의 정보빈곤층의 생성과 확산은 재일한인의 정보마인드의 결여와 정보환경의 취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재일한인 사회의 정보화를 제안하고 있다.

알아보는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26세 이상인 집단과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과 15세 미만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았고, 16세~20세인 집단이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p<.05$). 네트워크 구축의 평균값의 차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민세대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알아보는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650$, $p<.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이민3세대~4세대 집단’이 ‘이민세대를 모르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p<.05$). 거주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02$, $p<.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큐슈에 거주하는 집단이 류고쿠·시고쿠에 사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현재 신분별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89.283$, $p<.05$).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대학생·대학원생 집단과 직장인 집단, 무직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국적별 네트워크구축의 차이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6.973$,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조선적(무국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 보다 평균값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P<.001$)¹⁷⁾.

<표 6> 네트워크 구축관련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633	ANOVA 분석결과($\bar{x} \pm S.D.$)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1.42 $\pm$ 1.270	26.905 (.000)
	16~20세	333	2.04 $\pm$ 1.250	
	21세~25세	233	2.73 $\pm$.900	
	26세 이상	29	2.83 $\pm$.911	
이민 세대	1세대	6	1.88 $\pm$ 1.478	3.650 (.003)
	1.5세대	3	1.90 $\pm$ 1.652	
	2세대	15	2.17 $\pm$ 1.056	
	3세대	456	2.37 $\pm$ 1.149	
	4세대	101	2.33 $\pm$ 1.250	
	잘 모름	34	1.53 $\pm$ 1.167	

17) 장인성(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p44 참조
‘조선국적’으로 표상되는 ‘무국적’에 대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권력 정치적 구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견제하려는 심성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주 지역별	간토지방	58	2.02 ± 1.517	4.402 (.002)
	아이치	211	2.35 ± 1.187	
	간사이지방	320	2.31 ± 1.244	
	큐슈	28	2.80 ± .509	
	쥬고쿠, 시고쿠	16	1.42 ± 1.530	
현재 신분	고등학생	182	1.24 ± 1.250	89.283 (.000)
	대학생, 대학원생	283	2.64 ± .885	
	직장인	82	2.93 ± .945	
	무직	15	2.37 ± .945	
국적	한국적	446	2.18 ± 1.22	16.973 (.000)
	조선적	56	2.84 ± .833	
	일본적	60	2.56 ± .811	
초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57	2.05 ± 1.027	14.603 (.000)
	총련계학교	206	2.80 ± .978	
	일본계 공립학교	299	2.08 ± 1.214	
	일본계 사립학교	35	2.09 ± 1.190	
	기타 외국계학교	13	2.36 ± .940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2.21 ± .966	16.014 (.000)
	총련계학교	192	2.84 ± .875	
	일본계 공립학교	256	2.05 ± 1.232	
	일본계 사립학교	87	2.05 ± 1.267	
	기타 외국계학교	7	2.51 ± .758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2.23 ± .790	22.443 (.000)
	총련계학교	170	2.93 ± .751	
	일본계 공립학교	196	1.85 ± 1.321	
	일본계 사립학교	148	2.29 ± 1.250	
	기타 외국계학교	10	2.62 ± .715	

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

졸업 초등학교별, 중학교별, 고등학교별 네트워크 구축차이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14.603$, $p<.001$). 먼저 졸업 초등학교별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중학교별 일원변량 분석결과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16.014$,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총련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고등학교별 네트워크 구축의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22.443$,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총련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

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표 7>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한국에 방문해 본적 있다 (n=334)	한국에 방문해 본적 없다 (n=220)	t(p)
	$\bar{x} \pm S.D.$	$\bar{x} \pm S.D.$	
네트워크 구축	2.69 $\pm$.763	2.67 $\pm$.825	.290 (.623)

통계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한 집단간 통계적 차이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총련계 민족학교를 졸업한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이 민단계나 일본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과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 부모님의 민족배경과의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이 한국에 방문 경험여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T-test 결과, 평균값은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2.69,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집단이 2.67로 한국 방문경험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290$, $p>.05$). 즉 네트워크 구축 평균값과 한국방문 경험유무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5.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해보고 전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재일한인 청소년의 조직이나 단체활동, 네트워크 구축 관련 및 개인적,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고 T-test 및 ANOVA분석을 통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현재 재일한인 사회는 귀화자의 증가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¹⁸⁾. 이번 조사를 통한 통계적인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21세 이상의 연령층, 재일3세~재일4세, 대학생 신분과 총련계 민족학교를 졸업한 조선적 소유의 청소년 집단들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실시해온 민족학교 교육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¹⁹⁾ 반대로 민족정체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민단계 청소년 재일3세~재일5세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일본 현지 한국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한인 청소년과 유학생 상호간의 단순한 과거의 이념적 오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까지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활동이 매우 저조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수나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 상호간의 정보소통 빈곤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호이해의 확대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재일한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열악한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먼저 재일한인 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은 먼저 민단계와 총련계 학생단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 세계는 지금 각국 청소년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생활하는 민단계와 총련계 청소년들은 동질성이 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이념적 성향이나 민족갈등 때문에 교류가 지연되어

18) 조상균(2006),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1호』, pp.355-356 참조. 일본 국적법이 19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계혈통에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은 재일동포사회에 교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재일한인 사회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 앞의 논문 (정진성, 2005), pp.48-49 참조

재일한인은 해방직후 국어강습소, 한글학교를 세웠고 일본 재류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1946년 초급학교 건립을 결정했다. 1946년 당시 민족학교는 초급학교가 525개교, 중급학교가 4개교, 청년학원이 12개교이었으며 이듬해인 1947년에는 초급학교가 541개교, 중급학교 7개교, 청년학원이 30개교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취득자의 증가와 일본정부의 정규과정 불인정이라는 민족학교 차별로 인하여 민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67개 유치원, 83개 초급학교, 56개 중급학교, 12개 고급학교, 2005년도에는 일본전국 45개 유치원, 62개 초급학교, 38개 중급학교, 11개 고급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왔으며 각각 상이한 조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경에는 민단과 총련이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지원 단체의 성격에 따라 지원 목적이 향후 자기 조직의 '일꾼양성'이라는 편협된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총련계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 중심의 학생회나 대학생 중심의 작은 소그룹 중심인 조선인유학생동맹 단체, 조선인 문화 서클활동 등에서 한국문화나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반면에 민단계 재일청소년들은 간부 활동가 연수회, 어린이 여름캠프, 크리스마스 파티, 공생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스포츠대회, 성인식, 어린이 잼보리 대회 및 청소년 잼보리 대회, 광복절 행사 등 소그룹 보다는 대규모 조직구축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글로벌화의 영향과 일본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도래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변화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재일한인 청소년 조직의 최종목표는 결국 민단계와 총련계가 각종 모임을 통하여 민족의 재생과 재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일본 내의 강한 민족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하나의 동일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일한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 중인 소규모 그룹중심의 총련계와 대규모 그룹중심의 민단계 청소년들의 조직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단체의 지원활동과 모국연대를 통한 교류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본 국내외에서 상호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사회가 국제화, 지구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변모함에 따라 냉전시대의 갈등과 반목의 재일한인 사회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그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가 재일한인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연구는 재일한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먼저 민족단체로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민단과 총련계 청소년들 간의 정보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대립을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개인이나 집단간 상호 정보소통이 가능하도록 교류를 확대하여 60년이라는 깊은 골을 좁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사회 내 민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재일한인 사회 전체를 포괄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参考文献】

- 김정구(2004)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pp.265~279
- 김민영(1993) 「식민지 시대, 조선인 ‘전시노무동원’ 문제에 대한 연구쟁점과 전망(Ⅱ)」, 『지역개발연구』 제32권 1호, p.56
- 박용구(2007), 「겨울연가 ‘쓰나미’와 일본인의 대한 이미지 변화」 『일본연구』 제31호, p.63
- 이제환(2006), 「在日韓人の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 pp.40-41
- 윤건차(1999)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59~260
- 조상균(2006),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1호, pp.355-356
- 장인성(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p.44
- 정진성(2005), 「조총련 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p.43
- 한영혜(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제71집, 한국사회사학회, pp. 179-180
- 坂中英徳 (2000) 「在日韓国・朝鮮人の過去・現在・未来」 『現代コリア』 401号, pp.30~41
- 福岡安則・金明秀・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 (1994) 『第3次在日韓国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 pp.1~3
- 福岡安則 (1993) 『在日韓国・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公新書
- 鄭大均 (1991) 「在日韓国・朝鮮人と国籍」 『日本学年報』 第3輯、日本研究学会, pp.209~227
- 原尻英樹 (1998)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東京:講談社
- Ryang, Sonia(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在日コリアン青少年を対象にネットワークの実態を把握し、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の構築方案を模索することである。研究対象の母集団は2007年4月から同年8月まで約3ヶ月にかけて東京、大阪、福岡地域で回収された14才から24才までの在日コリアン青少年633名である。

分析の結果、一般的に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場合21才以上の年齢層、在日3世～在日4世、大学生身分で総連係民族学校を卒業した朝鮮籍の青少年集団が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に対する関心が高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は、1945年以降実施されたきた民族教育の影響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反対に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が相対的に弱いとされる民団系青少年集団は総連係青少年に比べ、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に関する関心が比較的に低かった。

本研究の結果から示唆点は二つ挙げられる。一つは、民団と総連係青少年相互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在から発生する誤解と対立を解消する方案として、民族間の乖離を克服できる交流の拡大である。もう一つは、これに基づいて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再規定し、在日コリアン社会全体を包括できる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が必要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青少年、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民族学校、総連係、
民団系、朝鮮籍、コミュニケーション、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500-843)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405번지 유창하이리빙 101동 1203호

電 話 : 010-9883-2428

e-mail : yimye@hanmail.net